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유가 진정, 반도체주 반등..하락 멈춘 미국증시

- 미국 증시 혼조 마감: 다우↓, 나스닥·S&P500↑
- 이란-이스라엘 교전 잠정 중단..유가 진정세
- 반도체주 급락 멈추고 반등

###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0.16%, 나스닥 +0.86%

6월 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지수별로 혼조 마감함.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간의 교전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양측이 교전을 멈추겠다고 발표하며 긴장이 다소 완화. 여기에 최근 시장 하락의 주 요인이었던 반도체주가 급락을 멈추고 반등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16% 하락한 50,786.01에 마감했지만 S&P500지수는 0.30% 반등한 7,405.73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지수는 0.86% 상승한 25,929.663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100도 1.58% 반등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도 0.77% 반등에 성공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 VIX는 12.04% 하락한 18.92에 마감.

(다우 -0.16%, 나스닥 +0.86%, S&P500 +0.30%, 러셀2000 +0.77%)

### 이란-이스라엘, '조건부' 교전 중단

사태 진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지시각 8일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가함. 이란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타브리즈 등에서 폭음이 들렸으며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이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로 우리 영토 내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힘.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미국 내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는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은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중서부 공습 감행 직후 예루살렘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이란 방면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공습이 이어짐.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음. 물론 '상대방의 자국에 대한 공격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기에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님. 다만 어느 정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당장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으로 시장 반등의 배경이 됨.

### 급락 멈춘 반도체주

기대 이상의 고용 보고서로 인한 금리 급등, 이란 사태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 등과 맞물려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AI반도체주가 인텔, 마블 테크놀로지 등의 개별 기업 호재와 함께 반등한 것도 이날 나스닥 반등으로 이어지며 시장 추가 하락을 방어함.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이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전망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등 반도체 업종 전반 매도세를 불러오는 빌미가 되었던 바. 여기에 알파벳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메타의 유상증자 검토 보도도 반도체 구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에 대한 부담과 자본지출 전망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반도체주 약세 요인이 됨. 다만 이번에 나타난 관련주의 급락은 업황 훼손보다는 과열된 포지셔닝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하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하는 흐름 안에서는 저가 매수가 보다 유리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이날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읽힘.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일 10% 이상 급락 이후 이날 5.61% 반등했고, 나스닥지수 역시 전일 4.18% 급락 후 이날 0.86% 반등하는 등 주요 지수의 낙폭 대비 반등 폭은 제한적인 상황. 추가 하락 없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유가과 금리 방향,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따른 차별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할 것으로 보임.

**미국 단기 인플레이션 소폭 둔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기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됨. 이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은 3.5%로 4월 기록했던 1년만의 최고치 3.6% 대비 0.1%p 하락.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달 사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미국에서는 10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될 예정.

**특징종목**

**AI 반도체주 반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61%**

브로드컴(+2.82%)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거친 차익 매물 출회에 급락했던 AI 반도체주가 이날은 일제히 반등하며 시장의 반등 시도를 이끔.

개별 종목별 이슈도 적지 않았는데 먼저 알파벳 구글(-1.42%)이 인텔(+9.87%)에 칩 생산을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인텔이 급등. 디 인포메이션은 구글이 인텔에 2028년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 300만개 이상의 생산을 의뢰했다고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1.73%) 역시 그래픽 칩 4개를 단일 유닛으로 결합한 프로세서 제조에 인텔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 중. 구글의 자체 AI 칩을 인텔이 생산하게 될 경우 인텔의 칩 위탁 제조 사업은 더욱 강화될 전망.

엔비디아(+1.73%)는 한국 SK하이닉스와 AI 팩토리 구축 위한 첨단 메모리 분야 협력 발표한 가운데 반등. 이날 UBS는 지난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컨퍼런스에서 AI 관련 컴퓨팅 수요가 AI 에이전트 기반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엔비디아가 최대 경쟁사 AMD(+5.13%)를 제치고 GPU 출하량에서 계속 우위를 점

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하기도.

웨이퍼 스케일 엔진 칩을 설계하는 세레브라스 시스템스(+18.32%)가 상승. IPO 주관사인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UBS 등의 월가 주요 증권사들이 상장 후 25일이 지나면서 이날 일제히 커버리지를 개시. 모건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AI 워크로드가 점점 더 추론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빠르고 지연이 적은 추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레브라스의 상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선점 우위를 가진 AI 프로세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힘. 씨티는 주가 목표치 340달러로 제시. 세레브라스는 아마존(-0.33%)과 오픈AI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오픈AI와 소프트뱅크의 투자도 받고 있음. 소프트뱅크는 상장 이전에 세레브라스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져. 세레브라스는 3주 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공모가 185달러로 증시에 입성.

마블 테크놀로지(+9.63%)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 S&P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급등. 마블 테크놀로지는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CEO로부터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음.

특수 유리 및 광섬유 회사 코닝(+5.61%)은 미국 내 아마존의 확장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광섬유 및 연결 솔루션 제공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코히어런트(+6.62%), 루멘텀 홀딩스(+3.68%),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11.10%) 등 광통신 관련 기업들 동반 강세.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9.87%), 샌디스크(+5.30%), 램 리서치(+6.98%), 시게이트 테크놀로지(+3.4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6.98%), KLA(+9.27%), 웨스턴 디지털(+2.97%),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5.6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2.05%), 온 세미컨덕터(+3.10%) 등 반도체 칩 생산업체, 설계업체, 장비업체, 소재업체, 스토리지 업체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반등.

이에 전 거래일 10% 이상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1% 반등했고 VANECK SEMICONDUCTOR ETF(SMH)(+5.00%), ROUNDHILL MEMORY ETF(DRAM)(+8.48%),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5.87%) 등 주요 반도체 ETF도 일제히 상승. 다만 주요 기업과 지수의 낙폭 대비 반등 폭은 제한적.

### 급락 테마주도 반등: 비트코인, 양자 컴퓨팅

전 거래일 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급락했던 테마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반등함.

양자 컴퓨팅 관련 아이온큐(+10.60%), 야킷 쿼텀(+5.60%), 쿼텀 컴퓨팅(+4.97%), 리게티 컴퓨팅(+5.25%), 디 웨이브 쿼텀(+8.30%), 쿼티뉴엄(+3.80%) 등이 전일의 급락을 딛고 상승 전환.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 언저리에서 반등하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내림세였던 관련주도 반등. 코인베이스 글로벌(+6.37%), 스트래티지(+5.61%), 로빈훅 마케츠(+3.12%), 마라 홀딩스(+11.85%).

### 빅테크 혼조: 아마존 대규모 회사채 발행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한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혼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6을 개최한 애플(-1.89%)은 새로운 시리 AI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특별한 혁신은 없었다는 실망으로 하락.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0.33%)은 14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달러 표시 우량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있었음. 캐나다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사업 투자 지원, 향후 자본지출 자금 조달, 부채 상환 등의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데이터 용량 확충을 위한 지출이 가속화되면서 대체 통화나 주식을 통한 추가 차입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아마존의 AI 투자가 내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라고 평가.

테슬라(+4.59%)가 이번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5% 가까이 상승. 앞서 지난 주말 JP 모건은 3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테슬라(+4.59%)에 대한 ‘매도’ 의견을 철회하고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한편 목표가 역시 기존 제시했던 업계 최저 수준 145달러에서 475달러로 상향한 바 있음. 이외 마이크로소프트(-1.18%), 메타 플랫폼스(-1.28%) 등은 하락권에 마감.

### 이외 특징주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업종- 엑슨 모빌(+1.22%), 셰브론(+1.03%), 다이아몬드백 에너지(+2.89%), 코노코 필립스(+1.49%)- 정도가 상승했을 뿐 여타 업종군은 다소 침체된 양상. 다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럼에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임.

일라이릴리(+1.57%)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의 새로운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급성장하고 있는 체중 감량 시장에서 일라이릴리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높아져. 한편 덴마크 제약사 질랜드 파마는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데이터에서 잠재적인 부작용과 관련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급락.

바이오 기업 누릭스 테라퓨틱스(+6.83%)도 스위스 제약사 로슈와 암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단백질 분해제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신발 제조사 크록스(+1.09%)는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한 가운데 상승. 베어드는 크록스의 북미 시장 전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

한편 이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급등하는 연료비 영향으로 올해 평균 항공유 가격이 전년 대비 70%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 항공사의 수익성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 델타 에어라인스(-1.52%)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1.2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0.39%) 등이 하락 마감.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미 국채 금리 소폭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장 중 단기물이 하락하고 장기물이 오르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인 끝에 추가 상승. 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잠정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오름폭을 줄이면서 국채금리 상승도 둔화하는 흐름. 그럼에도 높은 유가와 그로 인한 높은 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

2년물 금리가 1.5bp 상승한 4.1618%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2bp 오른 4.5622%로 전일 넘어선 4.5%선 위에 머무름. 30년물 금리는 2.50bp 상승한 5.024%로 5%선을 상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과 비슷한 27% 선에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3%대로 소폭 높아졌으며 두 번 인상할 가능성도 29%대로 높아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에 그침.

### 달러 약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 금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의 적극적 중재 속에 교전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자 오름폭을 줄인 유가와 함께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함.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9% 하락, 99.978을 기록. 달러-엔 환율은 0.021% 상승한 160.215엔으로 여전히 160엔선을 상회해 엔화 약세를 반영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05%, 파운드-달러 환율은 0.03% 상승해 유로와 파운드의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를 반영.

한편 전일 주간 거래에서 1,535.00원에 마감했던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8.50원 하락한 1,526.5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2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8.10원 하락한 1,525.70원에 마감함.

### 국제유가 상승: 급등세는 진정

초반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했지만 오름폭은 축소.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이란에 대한 전투기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앞서 4월 합의했던 휴전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초반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짐. 유럽 거래에서는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에서 공격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이어 나오자 유가 오름폭이 축소.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은 1.25% 상승한 배럴당 94.25달러에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84% 상승한 배럴당 91.30달러에 마감.

유가 상승과 함께 낙폭을 확대하던 국제 금 가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낙폭 축소. 한때 4,300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던 금 선물은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0.05%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363달러선을 기록.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1% 내외 하락으로 온스당 68달러 중반대를 기록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